

청소년 해외봉사단 활동이 봉사단원 개인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WFK IT봉사단과 일반 대학생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수연* · 이희진** · 권구순***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한 축이자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이 주요 이해관계자인 봉사단원들의 개인역량의 변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월드프렌즈 IT봉사단 50명과 일반대학생 집단 50명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 개도국에서의 1~2개월간의 봉사활동 수행, 사후 검사 순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검증내용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해외봉사단 활동 중 요구되는 개인역량의 성과 지표에서 문제해결능력, 셀프 리더십, 자아효능감, 문화 간 감수성을 추출하여 조사가 이뤄졌고 수집된 자료는 혼합변량분석(Mixed-ANOVA)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문제해결능력, 셀프 리더십, 문화 간 감수성의 3가지 영역에서 봉사단원과 일반대학생 간 사전-사후에 있어 순차적인 상호작용이 검증되었다. 둘째, 4가지 영역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서도 봉사단과 일반대학생 간 비교 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4개 영역에 걸쳐 단원들의 개인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관련, IT라는 동질적 분야에 유사한 목표와 역량, 성취의식을 갖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는 점과 업무분장이 뚜렷한 팀원들로 구성된 팀제의 편제조직이 주는 효용성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팀제 봉사활동에서 관찰된 부정적인 동학을 제거하기 위한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사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해외봉사단, 문제해결력, 셀프리더십, 자아효능감, 문화 간 감수성, 효과성

* 상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선임연구원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융합인재학부 교수, 교신저자, jeremy-kwon@iscu.ac.kr

I. 서 론

선진공여국에서 정부재원을 통해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개도국에서 수행하는 해외자원봉사활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재건과 함께 신생독립국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는 매개로써 추진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맥을 같이 한다. 물론, 국제적십자·적신월사 운동조직과 같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용된 해외봉사활동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파견의 목적을 정의하고 공공기관 혹은 공공재원을 토대로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청소년을 봉사의 주요 행위자이자 이해관계자로 참여시킨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1950년 호주해외봉사단 창설로 개시되었다. 이후 1961년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 설립이 토대가 되어 일본 등 타 공여국들로 확산되었다.¹⁾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서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도입은 타 공여국에 비해 다소 늦은 편으로 90년대 초부터 정부의 무상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비롯하여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장·단기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짧은 원조의 역사로 인해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부족했던 한국으로서 청소년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유사사업을 운영하는 서구 공여국 간 양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전략적 기제가 되었다. 우선,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교 우위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고 타 사업에 비해 투입 대비 산출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관련 정책변화의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의 규모가 유지되는 타당한 근거로 작용하였고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의 단기적 처방으로도 고려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²⁾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이 도입된 초창기는 서구 공여국과 한국을 막론하고 주로 파견국과 접수국 간 우호증진과 민간차원의 상호간 이해의 제고, 활동종료 청소년 단위들의 습득한 현지기반 지식과 맥락의 자국 환류 등 다소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목적과 성과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국제개발협력의 담론이 목적과 구

1) <http://kov.koica.go.kr/intro/service/trend.koica> (검색일: 2018.8.20)

2) 1990년 이래 2015년까지 총 8개 분야의 해외봉사프로그램에서 55,763명이 봉사단으로 활동했으며 2008년 이래로 매년 4,000명 수준의 해외봉사단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7).

체적인 성과 지향적 논의로 진화해 감에 따라, 해외봉사활동도 효과성이라는 성과프레임에 편입되기 시작하였다(이수연, 이희진, 윤정원, 권구순, 2017). 반면, 성과부문을 영역별로 유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며 분석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제 도입기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국제봉사협력기구(International Volunteer Cooperation Organization)가 주도하는 국제포럼에 참여하는 공여기구와 민간단체, 학계에서 2015년 출범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성과연구 및 방법론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Haddock & Devereux, 2015; Lough, Thomas & Asbill, 2015; Allum, 2016).

일반적으로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이해관계자별 성과측정대상을 구분해 보면 우선, 파견국 차원에서 봉사단원과 파견담당기관 및 해당기관이 설치한 현지 활동 지원기관 혹은 지원인력이 될 수 있고 접수국 입장에서 봉사단원 접수기관과 관계자, 활동지역 커뮤니티의 지도자, 그리고 봉사활동의 직접 수혜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봉사활동지역의 상이한 환경, 각기 다른 언어, 그리고 모든 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요구되는 과도한 예산확보의 문제로 인해 접수국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검증연구가 용이하지 않다보니 주로 국내에서는 주로 청소년 봉사단원의 인식과 정서, 태도 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창호 2011; 이선미, 김찬란, 2013; 김원곤, 2014; 서홍란, 김희년, 2014). 한편, 청소년 해외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요소들을 먼저 정의하고 이를 유기적 틀로 구조화한 프레임워크와 이를 근거로 한 실증적 연구가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전히 두 분야가 분절화된 상태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봉사단원부문의 성과요소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홍문숙, 김현, 이순열, 이선주, 남종민과 이희철(2016)이 제시한 봉사단원 성과지표가 측정요소의 포괄성과 봉사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척도추출의 용이성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월드프렌즈 IT봉사단 프로그램이 단원들의 역량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사전-사후 변화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홍문숙 외(2016)의 연구에서는 지표의 개요와 정의위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지표별 하위 영역을 검증할 수 있는 척도를 별도로 추출하였다. 또한 ODA사업의 평가에 대해 실험설계나 준 실험설계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이상미, 2016)

실험집단인 월드프렌즈 IT봉사단원 50명과 통제집단인 일반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의 역량변화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드프렌즈 IT봉사단 프로그램이 봉사단 개인차원 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봉사단과 일반대학생 간 사전-사후에 상호작용이 있는가?

둘째, 월드프렌즈 IT봉사단 프로그램이 봉사단 개인차원 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IT봉사단과 일반대학생 간 차이가 있는가?

셋째, 월드프렌즈 IT봉사단 프로그램이 봉사단 개인차원 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사전-사후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주요 공여국별 봉사단원의 성과준거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 가운데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과 같이 정부차원에서 직영하는 방식과 미국처럼 봉사단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준 정부기관을 두는 방식, 그리고 영국과 호주처럼 민간단체의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재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양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 별로 해외봉사단을 운영하는 철학과 목표, 그리고 추진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특히 봉사단원에 대한 성과평가의 접근과 방법론에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성과체계와 측정에 있어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틀을 도출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일관된 기준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구영은,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여국 별 해외봉사단 개인부문의 성과평가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는 것은 동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³⁾

3)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의 오랜 역사와 한국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대상 여부, 그리고 IVCO 가입을 통한 교류활동의 참여여부를 고려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의 경우, 활동에 참여한 단원들이 접수국에서 습득한 사회문화적 지식이 자국 내에 확산되는, 즉 세계를 미국에 환류시키는(Bring world back home) 것을 3대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Peace Corp, 2018). 즉, 봉사 활동에서 터득한 현지의 언어, 문화적 이해, 현지 활동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창업가적 도전정신이 개인적 경력개발차원을 넘어 그들이 접촉하는 가정과 기업,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소위 공공의 이익으로 수렴되는 것을 추구한다.

영국의 국제시민봉사단(International Citizen Service, ICS) 프로그램은 민관협력의 형태로 영국국제개발부(DFID)가 2011년부터 출범시킨 프레임워크 방식의 봉사단사업이다. 동 프로그램은 1953년부터 해외봉사단 파견활동을 수행했던 비영리 민간단체인 해외자원봉사기구(Voluntary Service Overseas, VSO)가 위탁을 받아 여타 봉사단체들과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ICS는 3대 성과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중 봉사단원 부문은 개개인의 성장과 함께 단원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적극적 시민성을 견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봉사활동이 단원들에게 미친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서적 영역에서 자기 확신과 자아인식, 동기유발에 근거한 적응력, 복원력(resilience)이 향상되었고 인지적 영역에서 현지의 지식과 활동을 통한 기술이 습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Clark & Lewis, 2016).

일본의 해외협력봉사대(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의 경우, 파견이후 귀국단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각종 봉사관련 활동에 참여하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

호주의 경우, 민관협력방식의 호주해외봉사단(Australian Volunteers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호주국제봉사기구(Australian Volunteers International, AVI)와 함께 개발컨설팅기업인 카드노(Cardno)사와 화이트룸그룹(Whitelum Group)의 컨소시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목적은 개도국 정부, 기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국제개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호주와 개도국 민간교류를 구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3대 장기성파로 호주정부와 협력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고 호주에 대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며 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의 지지를 증진하는 것을 제시한다. 호주 역시 영국과 유사하게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에 입각하여 일원화, 정책 및 관리, 성과관리의 적절성, 효과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DFAT, 2014).

표 1

주요 공여국별 해외봉사단 파견기관의 개인측면 성과평가 준거

기관명	평가준거(지표)	평가방법
Peace Corp (미국)	■ 봉사자의 지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습득 ■ 봉사자의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력과 그들의 봉사경험에 대한 만족 ■ 파견국에서 다른 문화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더 나은 이해	설문조사
ICS (영국)	■ 가난, 평등, 개발에 대한 제고된 의식 및 이해 ■ 자신감과 기술 개발 ■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증대 ■ 변화에 대한 자극과 동기부여 ■ 개인적 책임감과 변화	설문조사, 인터뷰 관찰
JOCV (일본)	■ 귀국봉사단원들의 사회기여도 ■ 귀국봉사단원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설문조사
AVID (호주)	■ 봉사단원 개인적 전문성 발전 ■ 개발에 대한 향상되고 긍정적인 이해	설문조사

출처: 홍문숙 외 2016, p.92

종합해 보면,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글로벌 이슈와 다문화적 이해, 그리고 단원개인의 지적, 정서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일본은 단원의 장기적인 변화로써 사회적 기여와 참여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해외봉사단원의 역량요소

해외봉사단의 개인별 역량부문에 대한 해외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Lough, Sherraden, McBride & Xiang(2014)는 해외봉사 활동이 참가자의 문화 간 및 국제와 관련된 부분의 성과(international/intercultural outcomes)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 ‘문화 간 관계’ 및 ‘국제 사회적 자본’의 세 요소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문화 간 관계’란 다른 문화적, 인종적 및 종족적(ethnic)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의미하고 ‘국제 사회적 자본’이란 다른 문화에 대한 노출이 가져오는 우정, 좋은 관계 등의 본질적 가치를 넘어서서, 이러한 관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 즉 자원 동원이 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McBride, Lough & Sherraden(2010)는 국제적 경력개발 의도(international career intention)를 봉사자 개인 성과로 측정하였는데 주로 봉사활동을 통해 개도국의 사회-경제개발과 관련한 경력개발과 기타 국제관련 경력개발의도가 얼마나 증대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Yashima(2010)는 봉사단원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신의 만족감과 수행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감(perceived contribution)을 제시하였고 Onuki(2018)는 인지된 목적 달성도(perceived goal achievement)와 인지된 현지 조직에 대한 성과(perceived outcomes on counterparts)를 개별 봉사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 봉사단원의 국내연구는 주로 대학이나 민간단체에서 자체 재원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해외봉사단활동에 있어 봉사단 역량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검증한 소수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해외봉사단 역량요소관련 국내연구현황

연구자	연도	역량요소
신성희	2003	협동성, 책임성, 봉사성
김찬란	2011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문화적 이해 능력, 학생 주도의 추진능력, 사회적 관계 능력, 개인 성찰
이재득	2011	의식의 변화
박준홍, 이환, 조수연과 김매이	2011	프로그램 기대일치도와 대인관계
석류	2012	자아정체성
이창호, 김연우	2012	대인관계·정치적·사회적 임파워먼트
이선민, 김찬란	2013	문화적 감수성
김원곤	2014	자아정체감과 존중감, 지적 발달과 탐구능력, 문제해결력, 자아의 이해와 경력개발
서홍란, 박정란	2014	세계시민 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강혜라	2015	시민의식

상기 해외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해외봉사활동이 개도국에서 수행되는 지리적 특성으로 문화 간 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이나 국제 관련 지식, 관심, 이해 등이 주요 역량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문화 간 역량이나 문화적 감수성이 종속변수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세계시민의식의 변화에 대한 검증도 수행된 바 있다. 또한 자아정체성과 존중감, 자아의 이해 등 정서적 측면의 지표도 제안되는 한편,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통합적 대응역량도 제시되고 있다.

3. 해외봉사활동의 단위영역 성과에 대한 개념적 틀

전술한 바와 같이 봉사활동의 성과는 활동전반에 연계된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시계열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Sherraden, Lough & McBride(2008)이 제시한 틀을 보면, 먼저 봉사단원 및 프로그램의 속성, 봉사단원 및 기관의 역량, 그리고 봉사활동의 속성 등 세 가지 차원이 각각 또는 결합하여 해외봉사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성과(outcomes)는 현지 공동체에 미치는 성과, 봉사단원에게 미치는 성과, 파견기관에 미치는 성과의 세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봉사단원에 해당하는 능력요소로는 지식과 기술, 동기유발과 노력, 이전 봉사활동과 국제교류경험, 가용시간으로 구분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성과요소로서 과업경험과 기술의 습득, 자기개발, 다문화적 역량과 언어구사력 향상, 국제적 지식과 이슈의 이해 제고, 민주적·글로벌 현안에 대한 참여 증진을 제시하였다(Sherraden 외, 2008).

한편, 월드프렌즈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KOICA(2013)는 봉사단원의 성과를 검증하는 설문조사에서 개인역량 부분을 8가지 영역으로 단순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리더십 향상, 문제해결능력 향상, 친화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 관심분야에 대한 지식 및 기술향상, 외국어학습에 대한 관심 및 능력향상,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안목 향상, 관심분야의 다양한 기회증대’이다. 이러한 단선적인 역량요소 및 성과를 포괄하는 보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방법론을 제시해주는 연구의 필요성이 KOICA 및 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기된 결과, 일련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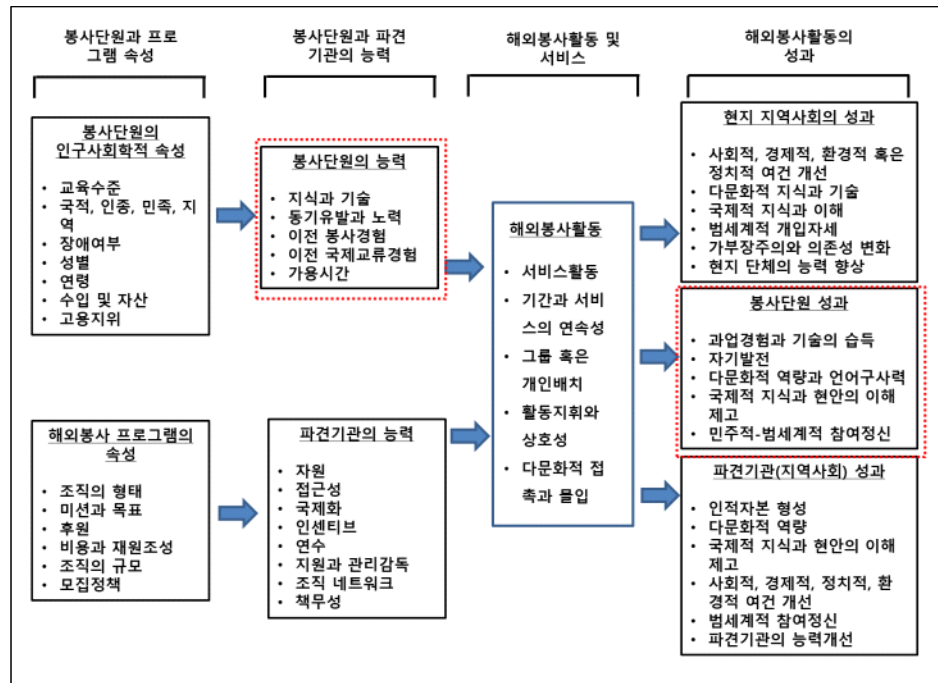


그림 1. 해외봉사활동 효과성에 대한 개념모델

출처: Sherraden 외 2008, p.397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로서 새마을 리더 봉사단사업에 대한 평가(홍기용, 최병익, 김종일, 2013)가 있었고 WFK사업 중 KOICA가 모집 및 관리하는 일반봉사단원의 분야 및 직종별 추진전략연구(주성수, 조영호, 이란희, 2014)가 수행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WFK봉사단 활동의 전반적인 성과모형과 지표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홍문숙 외, 2016)가 실시되었다. 특히 홍문숙 외(2016)는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성과모형을 도출하였는데 봉사단원 측면에서 장기성과를 글로벌인재양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중기성과로 역량강화, 인성함양,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로 성과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상기 중기성과요소별로 산출물(output) 수준의 하위지표들이 제시되었는데 우선 역량요소에는 ‘어학, 전문성, 리더십과 문제해결력, 접수국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인성요소는 ‘포용감, 자립심,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인적 네트

워크는 ‘현지수혜자, 타 국가의 봉사단원, 그리고 동료 봉사단간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위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틀과 성과요소의 견지에서 연구대상인 월드프렌즈 IT봉사단의 조직과 과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4~5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편제되고 각 봉사단원별로 IT, 언어, 문화담당 등 부여된 책임이 있다. 팀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후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과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IT교육봉사의 경우, 각 봉사단원은 현지기관의 직원 및 수혜자 그룹간 소통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력과 셀프리더십은 성과지표로서 매우 유효하다. 인성과 정서적 측면에서 자기 확신과 자긍심의 모태가 되는 자아효능감 역시 주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제시되었고 위의 현지수혜자와 타국의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지표는 문화적 감수성으로 수렴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파견하는 2016년 IT봉사단 50⁴⁾명과 일반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대학생은 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IT봉사단과 같은 비율의 성별과 연령대의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원의 경우 최소 30명 이상이 요구되어야 실험설계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또한 조사연구에서와 같은 대단위의 인원은 통계적 분석의 과정에서 실험설계의 정교함을 해치는 요인이 됨으로 본 연구에서는 50명의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실험설계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T봉사단의 경우 총 364명 중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일반대학생과 성별, 연령 뿐 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선발한 후 전공이 유사한 학생을 우선하여 50명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대한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여 외적 타당성을 담보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분할구획 요인설계(Split-Plot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였다. 이는 완전무선설계(Completely Randomized Design)와 무선구획설계(Randomized Block Design)를 합친 것이다. 분할구획 요인설계에서는 처치 A요인의 효과는 완전무선설계로 검증하고 이를 개체 간 비교검정(between subject comparison)이라 하며, 처치 B요인과 A×B요인의 효과는 무선구획설계로 검정을 하고 이를 개체 내 비교검정(within subject comparison)이라 한다. 설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TG	O ₁	X	O ₂
CG	O ₃		O ₄

TG O₁ : 실험집단(IT봉사단) 사전검사
 TG O₂ : 실험집단(IT봉사단) 사후검사
 X : 실험처치(IT봉사단 프로그램)
 CG O₃ :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사전검사
 CG O₄ : 통제집단(일반대학생) 사후검사

그림 3. 연구설계모형

이처럼 연구자가 독립변수에서 복수의 처치를 또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정하는 경우에, 분할구획 요인 설계는 인과관계 추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검정력을 높이기 위한 설계라고 할 수 있다(강상진, 2003).

가장 이상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무선배치(random assignment)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IT봉사단이라는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을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완벽한 실험설계 기법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선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인과관계 추론을 목적으로 하는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 실험집단의 실험 처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검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검사의 내용으로는 홍문숙 외(2016)에서 제시된 봉사단원부문의 중기성과에 근거하여 역량, 인성, 글로벌 네트워크의 산출물 단위 하위영역으로서 역량은 문제해결능력, 셀프 리더쉽, 인성은 자기효능감, 글로벌 네트워크는 문화 간 감수성이 조사되었다. 실험 처치 전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2016년 월드프렌즈 IT봉사단 소양교육’ 기간 중 5월24일에 오프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고, 일반인 대학생 집단은 6월 13일~24일 사이 온라인 설문으로 사전 검사를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이 실시된 IT봉사단과 일반대학생의 특성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3

IT봉사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징(N=50)

성별		연령		군복무 여부	
남	25(50%)	19~22세	30(60%)	미필	6(24%)
여	25(50%)	23~26세	15(30%)	군필	19(76%)
		27세 이상	5(10%)		
무응답=0		무응답=0		무응답=25(50%)	
영어 능력		현지언어 능력		단기체류 여부	
저	15(30%)	저	15(30%)	없음	25(50%)
중	20(40%)	중	20(40%)	있음	25(50%)
고	15(30%)	고	15(30%)		
무응답=0		무응답=0		무응답=0	
장기체류 여부		봉사국가		봉사기간	
없음	25(50%)	동남아시아	15(30%)	3~4주	0
있음	25(50%)	중앙아시아	15(30%)	5~6주	5(10%)
		남미	10(20%)	7~8주	45(90%)
		아프리카	10(20%)		
무응답=0		무응답=0		무응답=0	

청소년 해외봉사단 활동이 봉사단원 개인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WFK IT봉사단과 일반 대학생 간 비교를 중심으로

담당역할		담당분야		주관기구	
팀원	25(50%)	IT	30(60%)	NIA	50(100%)
리더	25(50%)	현지언어	10(20%)	국제기구	0(0%)
		문화	10(20%)		
무응답=0		무응답=0		무응답=0	
팀구성					
혼성	40(80%)				
비혼성	10(20%)				
무응답=0					

표 4

일반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징(N=50)

성별		연령		군복무 여부	
남	25(50%)	19~22세	30(60%)	미필	6(24%)
여	25(50%)	23~26세	15(30%)	군필	19(76%)
		27세 이상	5(10%)		
무응답=0		무응답=0		무응답=25(50%)	

실험 처치가 끝난 후 IT봉사단과 일반대학생 집단 모두 온라인으로 9월 19일~23일 까지 사후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내용으로는 사전검사에서와 같이 문제해결능력, 셀프 리더십, 자기효능감, 문화 간 감수성이 포함되었다.

4. 연구 도구

1) 문제해결능력 (Problem solving skill)

문제해결능력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을 말한다(Jao & Loo, 1999).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러한 관심에 따라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장적인 태도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그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행동을 수정하며, 행동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김이영 외, 2008).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석재 등(2003)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문제해결능력 진단지를 사용하였다. 이 진단지의 하위요인은 문제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의 5개의 측정변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식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의 내적 합치도 검정 결과, 개발 당시의 Cronbach α 값은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 셀프 리더십(Self-Leadership)

셀프 리더십은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지시(self-direction)와 자기 동기부여(self-motivation)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Houghton & Neck, 2002). 이러한 셀프 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 및 인지전략을 모두 일컫는다. 따라서 주어진 과업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뿐 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허갑수, 변상우, 2012).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하여 Houghton과 Neck (2002)의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국내에서 이종원(2014)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RSLQ의 하위요인과 문항은 행동중심전략 18문항, 자연보상전략 5문항, 건설적 사고유형전략 12문항 등 3개의 측정변인 아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식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 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의 내적 합치도 검정 결과, 개발 당시의 Cronbach α 값은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3)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표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된다(Bandura, 1988).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개념, 자기수용, 자기확신, 자기강화, 자아상, 자기지각 등으로 정의되고, 좁은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일컬어진다(Kim & Cha, 1997).

이러한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정은(1996)의 일반적 자기 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은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으로 3개의 측정변인 아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식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의 내적 합치도 검정 결과, 개발 당시의 Cronbach α 값은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문화 간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문화 간 감수성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여러 문화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정서적인 반응과 욕구를 일컫는다(Chen & Starosta, 2000; 이수연 외, 2017 재인용). 문화간 감수성은 다른 문화 간의 교류에 대한 태도로 상호작용에의 참여, 다른 문화와의 공감과 개방성을 나타내는 문화 간 차이존중, 다른 문화 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나타내는 상호작용의 유능감, 문화 간 상호작용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작용의 태도 등을 구성요인으로 한다(유종열, 2011; 이수연 외, 2017 재인용).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문화 간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hen과 Starosta(2000)에 의해 개발된 문화 간 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를 국내에서 김옥순(2008)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은 상호작용 참여도 7문항, 문화차이 존중도 6문항, 상호작용 자신도 5문항, 상호작용 향유도 3문항, 상호작용 주의도 3문항으로 5개의 측정변인 아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방법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되

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설문 문항의 내합치도 검정 결과, 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자료에 대해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혼합변량분석(Mixed ANOVA)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개체 내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비교 집단 및 개인적 특성, 조직적 특성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개체 내 차이 및 집단 간 차이의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단, 결과를 해석할 때, Familywise-Type I 오류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Bonferroni 유의수준 교정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수준을 $p < .01$ 로 설정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 대학생과 IT봉사단 간 사전·사후에서의 영역별 차이

월드프렌즈 IT봉사단 프로그램이 단원들에게 영역별로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집단 별 성과지표 하위영역의 사전-사후검사 기술통계 결과

하위영역		IT봉사단			일반대학생		
		사전	사후	변화량	사전	사후	변화량
문제해결력	<i>M</i>	3.46	3.83	.37	3.41	3.42	.01
	<i>SD</i>	.39	.42		.42	.37	

하위영역		IT봉사단			일반대학생		
		사전	사후	변화량	사전	사후	변화량
셀프리더쉽	<i>M</i>	3.61	3.97	.36	3.58	3.58	.00
	<i>SD</i>	.44	.51		.48	.48	
자아효능감	<i>M</i>	3.45	3.62	.17	3.03	3.02	.01
	<i>SD</i>	.50	.55		.43	.42	
문화 간 감수성	<i>M</i>	3.54	3.89	.35	3.28	3.32	.04
	<i>SD</i>	.29	.49		.30	.36	
전체	<i>M</i>	3.52	3.86	.33	3.33	3.35	.02
	<i>SD</i>	.30	.37		.31	.32	

분석 결과, IT봉사단원의 경우 성과지표 하위영역의 평균이 3.52에서 3.86 으로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높아진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는 3.33에서 3.3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표준편차에서도 IT봉사단은 .03에서 .37로 뚜렷하게 집단 내 변산이 줄어들었으나, 일반대학생은 .31에서 .32로 집단 내 변산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T 봉사단의 영역별 변화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문제해결력, 셀프 리더쉽, 문화 간 감수성, 자아 효능감 순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IT봉사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하위영역별로 검증하기 위해 혼합변량분석을 반복해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IT봉사단원의 성과지표 하위영역에 대한 혼합변량분석 결과

종속 변수	변량원	SS	df	MS	F
문제 해결력	집단간				
	집단	6.91	1	6.91	38.64***
	오차	17.54	98	.17	
	집단내				
	검사시점	6.14	1	6.14	61.27***
	집단×검사시점	.69	1	.69	6.90**
	오차	9.83	98		
	총합				

종속 변수	변량원	SS	df	MS	F
셀프 리더쉽	집단간				
	집단	2.58	1	2.58	10.03**
	오차	25.24	98	.25	
	집단내				
	검사시점	1.72	1	1.72	24.98***
	집단×검사시점	1.56	1	1.56	22.65***
	오차	6.78	98	.06	
	총합				
자아 효능감	집단간				
	집단	12.77	1	12.77	37.67***
	오차	33.22	98	.33	
	집단내				
	검사시점	.29	1	.29	1.49
	집단×검사시점	.44	1	.44	2.22
	오차	19.368	98	.198	
	총합				
문화 간 감수성	집단간				
	집단	2.13	1	2.13	6.57**
	오차	31.81	98	.32	
	집단내				
	검사시점	1.59	1	1.59	11.57**
	집단×검사시점	1.46	1	1.46	10.60**
	오차	13.50	98	.138	
	총합				

* $p<.05$, ** $p<.01$, *** $p<.001$

분석 결과, [연구문제 1]과 관련 IT봉사단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IT봉사단과 일반대학생간 사전-사후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6.90$, $p<.05$). 단원들이 IT봉사단 활동을 수행 후 문제해결력 수준이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IT봉사단이 월드프렌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 후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문제해결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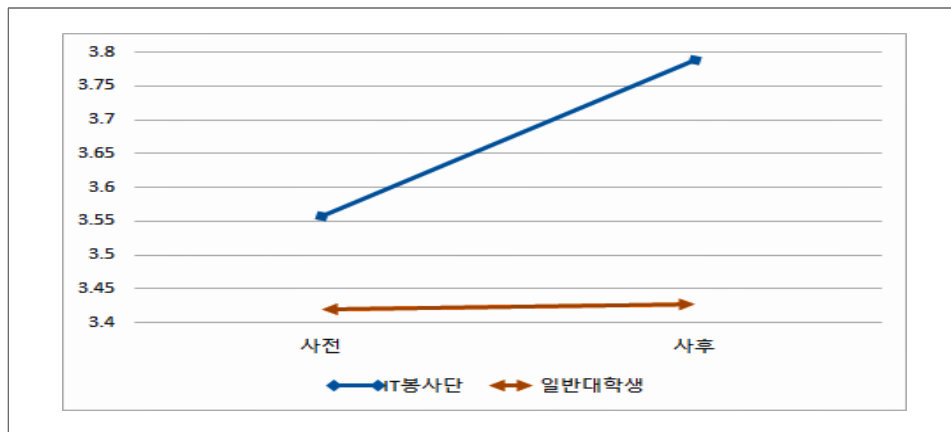


그림 4. 문제해결력의 집단 간 × 검사시점 내 상호작용

둘째, 셀프 리더쉽도 일반대학생과 IT봉사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33.65$, $p<.01$). IT봉사단의 월드프렌즈 프로그램 수행 후 셀프 리더쉽 수준이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IT봉사단이 월드프렌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 후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셀프 리더쉽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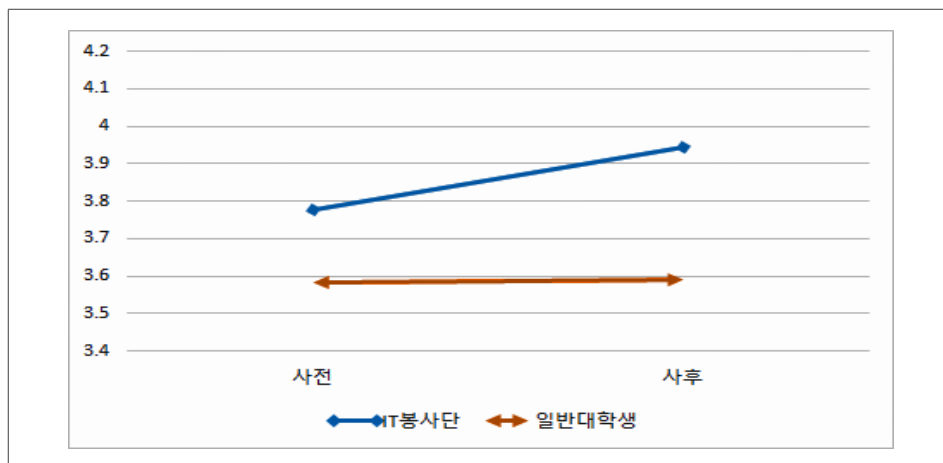


그림 5. 셀프 리더쉽의 집단 간 × 검사시점 내 상호작용

셋째, 자아 효능감은 일반대학생과 IT봉사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2.22, p>.05$). 단원들의 IT봉사단 활동 수행 후 측정된 자아효능감 수준이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IT봉사단이 월드프렌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 후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자아 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문화 간 감수성은 일반대학생과 IT봉사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10.60, p<.05$). IT봉사단의 월드프렌즈 프로그램 수행 후 문화간 감수성 수준이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더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대학생 집단과 비교 시 단원들이 IT봉사단 활동참여 후가 수행하기 전보다 문화 간 감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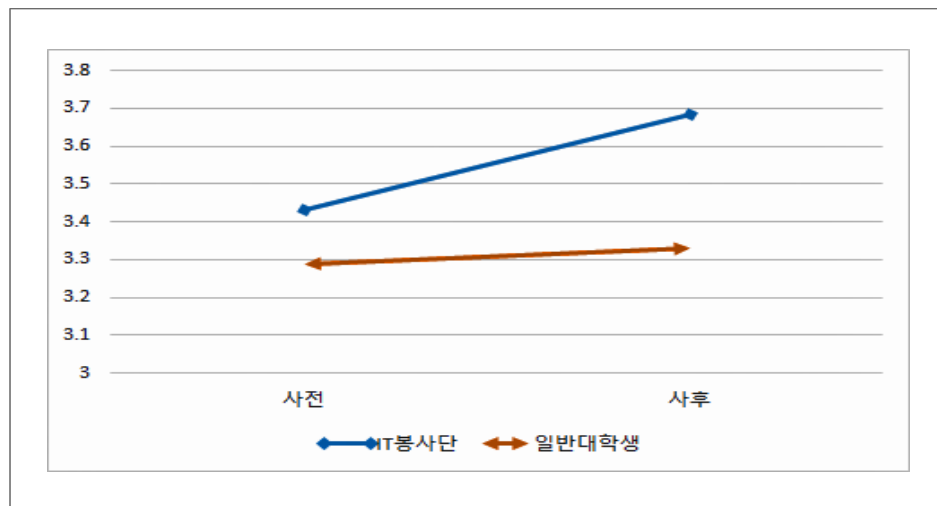


그림 6. 문화 간 감수성의 집단 간 × 검사시점 내 상호작용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월드프렌즈 IT봉사단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문제해결력, 셀프 리더십, 자아 효능감, 문화 간 감수성이 각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원들이 수행한 해외봉사활동은 대체적으로 중기성과지표인 역량과 인성, 글로벌 네트워크의 하위영역, 즉 문제해결력,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문화 간 감수성의 확장에 있어 정적인 효과성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효과성이 일반대학생 집단과의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과 관련, 월드프렌즈 IT봉사단 프로그램은 봉사단 개인차원의 단기 성과지표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봉사단과 일반대학생 간 사전-사후에 자아효능감을 제외한 3가지 영역에서 순차적인 상호작용이 검증되었다. [연구문제 2]의 경우도 IT봉사단 프로그램이 봉사단 개인차원의 성과지표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봉사단과 일반대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에 있어서도 IT봉사단 프로그램이 봉사단 개인차원의 단기성과지표에 미치는 효과성에 있어 사전-사후에 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우선, 다양한 봉사분야를 소화해야 하는 타 해외봉사단과 달리 IT라는 한 가지 분야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표의식과 역량, 성취 욕구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한국 정보화 진흥원 관계자와의 면담 시 입수했던 당시 모집 경쟁률도 타 해외봉사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 단위 봉사활동 조직이 갖는 역동성을 들 수 있다. 특히 팀원들의 업무분장이 잘 정의되어 있었고 파견 전 활동기획과정에서 팀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제 활동은 규모의 경제로 전체 봉사 시간이 늘어나고 이는 수혜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다시 봉사단 개인의 성취감으로 환류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팀제 활동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팀 내부의 집단 동학(group dynamics)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동학, 예를 들어, 집단 내 갈등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봉사활동의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단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한 결과, 봉사활동의 수행에 있어 팀 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의외로 팀 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미숙하여 팀 동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일부 포착되었다.

실제로 해외봉사가 ‘개인 활동인지 아니면, 팀제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해외봉사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Sherraden 외, 2008). 따라서 집단 내 상호성과 역동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팀 내에 잠재된 부정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파견 전 교육프로그램에 갈등관리연수와 같은 모듈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방식에 있어 기존 만족도 조사나 비정형화된 요인들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성과지표에 포함되는 역량요소의 충분한 고찰을 통해 경험적, 실증적으로 해외봉사활동이 단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성과로서 검증을 시도하였다. 또한 해외봉사활동이 영역별로 어떤 효과성을 가져오는지 즉, 변화의 양상을 보다 정교한 실험설계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 검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월드프렌즈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진 (2003). 교육학의 미래와 다층모형. **한국교육**, 30(1), 435-454.
- 강혜라 (2015). **해외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영은, 최경화, 손성경 (2016). WFK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수원국 중심의 해외봉사단 성과요소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6(3), 109-144.
- 김옥순 (2008). 한·중 예비교사들간의 문화 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1), 193-217.
- 김원곤 (2014). 대학봉사학습과 해외봉사활동 운영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논문집**, 79-80.
- 김이영, 백용매, 박현숙 (2008). 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이 재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7(3), 322-331.
- 김찬란 (2011). 글로벌 시민성의 관점에서 본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A대학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 **시민사회와 NGO**, 9(2), 33-56.
- 박준홍, 이환, 조수연, 김매이 (2011). 여가로서의 자원봉사: 대학생 해외자원봉사자의 기대일치도, 환경만족도, 대인관계가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 89-101.
- 서홍란, 김희년 (201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자원봉사자들의 봉사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1-27.
- 서홍란, 박정란 (2014).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기초연구. **청소년학연구**, 21(2), 139-168.
- 석류 (2012). **태권도 해외봉사 경험을 통한 세계시민의식함양 및 자아정체성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성희 (2003). **해외단기성교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종열 (2011). 외국어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문화 간 감수성 비교 연구: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0(3), 29-47.
- 이상미 (2016). **영향평가 방법론 및 사례: 무작위대조군 연구 및 이중차감법을 중심으로**.

- (개발과 이슈 28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이석재, 장유경, 이헌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선민, 김찬란 (2013). 단기 해외 체험에서 프로그램 구성요인이 문화 간 감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7(5), 523-556.
- 이수연, 이희진, 윤정원, 권구순 (2017). 월드프렌즈 IT봉사단의 성과평가 연구: 개별 봉사단원의 특성과 역량, 인성, 인적 네트워크부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정보화 정책**, 24(2), 1-18. doi:10.22693/NIAIP.2017.24.2.068
- 이종원 (2014).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 사회적 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득 (2011). 한성대학교 초기 해외봉사와 학생들의 의식변화. **한성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원**, 12, 5-31.
- 이창호 (2011). 해외봉사활동이 수혜국가 아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캄보디아 빈곤 아동들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경성대 사회과학연구**, 27(3), 213-239.
- 이창호, 김연우 (2012). 해외자원봉사활동이 임파워먼트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 23(2), 243-272.
- 임시혁 (2002). **공분산분석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주성수, 조영호, 이란희 (2016). 해외봉사단 효과성 증진을 위한 봉사단 분야별, 직종별 추진전략(2016-07-761).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차정은 (1996). **일반적 자아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국제협력단 (2013). 2012 World Friends Korea 봉사단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7). **한눈에 읽는 2015년 World Friends Korea 주요통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허갑수, 변상우 (2012). 셀프 리더십이 목표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 검증. **경영정보연구**, 31(1), 23-44. doi:10.29214/damis.2012.31.1.002
- 홍기용, 최병익, 김종일 (2013).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 평가방안 연구**

- (2013-05-576).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홍문숙, 김현, 이순열, 이선주, 남종민, 이희철 (2016). **월드프렌즈사업 성과관리 지표 개발연구**(2016-02-0230).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Allum, Cliff (2016). *Why Measure and For Whose Benefit?*. Strasbourg: IVCO.
- Bandura, Albert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doi:10.1037/0033-295X.84.2.191
- _____ (1988). Self-efficacy Conception of Anxiety. *Anxiety Research*, 1(2), 77-98. doi:10.1080/10615808808248222
- Chen, Guo M., & Starosta, William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n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Proceedings (86th, Seattle, WA, November 8-12).
- Clark, Janet & Lewis, Simon (2016). *Impact beyond volunteering: A realist evaluation of the complex and long-term pathways of volunteer impact*. London: VSO.
- DFAT (2014). *Evaluation of the Australian Volunteer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VID) program*. Canberra: DFAT.
- Haddock Megan & Devereux Peter (2015). *Documenting the Contribution of Volunteering to the SDG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Universal SDGs for IVCOs and Volunteer Groups*. Strasbourg: IVCO.
- Houghton, Jeffrey D., & Neck, Christopher P. (2002). The 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 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doi:10.1108/02683940210450484
- Jao, Hsiao-Pu I., & Lu, Shu-Jen (1999). The Acquisition of Problem - solving Skills through the Instruction in Siegel and Spivack's Problem - solving Therapy for Chronic Schizophrenic. *Occup Ther Ment Health*, 14(4), 47-63. doi:10.1300/J004v14n04_03
- Kim, Ah Y., & Cha, Jeong E. (1997). Efficacy of measurement.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Winter Conference Proceedings, 51-64.

- Lough, Benjamin, Sherraden, Margaret, McBride, Amanda & Xiang, Xiaoling (2014).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ervice on the development of volunteers' intercultural rel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46, 48-58. doi:10.1016/j.ssresearch. 2014.02.002
- Lough Benjamin J., Thomas, Margaret, & Asbill, Michelle A. (2015). International Volunteering for Development: A Desk Review of Forum Member's Grey Literature. Illino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McBride, Amanda, Lough, Benjamin & Sherraden, Margaret (2010). *Perceived Impacts of International Service on Volunteers: Interim Results from a Quasi-Experimental Study*. Washington DC: Brookings
- Onuki, Mayuko (2018). *Measuring the Competencies of International Volunteers: Key Competencies of the 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and their Perceived Achievements and Outcomes* (RI, 164), Tokyo: JICA.
- Peace Corp (2018). FY 2017 Annual Performance Report. Washington DC: Peace Corps.
- Sherraden, Margaret Lough, Benjamin & McBride, Amanda (2008).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and Service: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Predictors. *Voluntas*, 19, 395-421. doi:10.1007/s11266-008-9072-x
- Yashima, Tomoko (2010).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 work experiences on intercultural competence of Japanese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4, 268-282. doi:10.1016/j.ijintrel.2009.12.003
- <http://kov.koica.go.kr/intro/service/trend.koica> (검색일: 2018. 8.20)

ABSTRACT

A quasi-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volunteering on youth volunteers' capacities: A comparison between WFK IT volunteers and controlled university students

Lee, Suyeon* · Lee, Heejin** · Kwon, Goosoo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validate the effect of the international volunteer program on the capacity of youth volunteers. The program is one of the key ODA components and intends to foster young global leaders. A quasi-experiment was carried out with fifty (50) World Friends IT Volunteers and fifty (50) university students, the latter being the controlled group. The experiment comprised the pre-test, one-to-two months of volunteering in a developing country, and the post-test. Drawn from existing studies, the four (4) indicators of individual volunteers' capacities - problem solving skill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and inter-cultural sensitiveness were appli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ixed-ANOV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first, there are ordinal interactions in the IT volunteer program between volunteers and university students in the three indicators - problem solving skills, self-leadership,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Second, the effects of the volunteer program on the four indicators of the volunteers' capacities are significant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led group. Third, it is shown that the volunteers' four individual capacities have been positively improved.

The positive outcome can be attributed to the following three (3) factors. First, volunteers are recruited in a homogeneous field of IT; they share common goals and the sense of achievement, and have a similar level of competence. Second, volunteering activities were done by team. Third, as a team, there was a clear division of labor in voluntary activities. Meanwhile, the study suggests that a program for conflict resolution and management be included in the raining curriculum in order to eliminate the negative dynamics from team based voluntary activities.

Key Words: international volunteers, problem-solving skill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cultural sensitiveness, and effectiveness

투고일: 2018. 9. 5, 심사일: 2018. 11. 9, 심사완료일: 2018. 11. 23

* Senior Research Fellow, Applied Psychology Institute, SKKU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Future Multidisciplinary Studies, SCU